내일죽어도 마음만은 평화롭다

췌장암과 싸우는 스테이플턴 女史

카터누이동생 제2의 시한부生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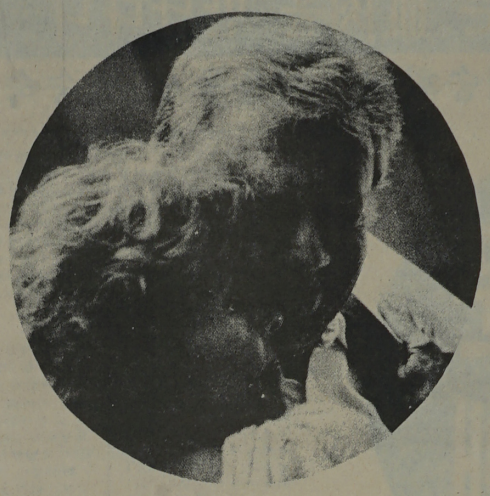
▲불치의 췌장암선고를 받고 식이요법과 신앙에 의지, 투병생활중인 카터전대통령의 누이동생 루스·카터·스테이플턴여사.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호수가에 자리잡은 오두막 주변의 자작나무에 기대어 햇볕을 피하고있는 루스·카터·스테이플턴여사(53)는 『보통사람들세계에서 살기란 무척 힘들죠. 더구나 항상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한다.

스테이플턴은 또 『9월에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10월에…』라며 호느끼지만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다고 털어놓는다.

지미·카터 전대통령의 누이동생 루스·카터·스테이플턴은 췌장(지라)

오늘의話題



▲시한부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누이 루스를 찾아온 카터전대통령이 루스를 다정하게 안아주고 있다.

암에 걸려 여느 암환자들이 그렇듯이 괴로운 투병생활을 계속중이다.

미국전역과 세계각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스테이플턴은 불치의 암에 걸렸으면서도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회복하지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겠다』며 강한 신앙심을 확인하고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함에 있는 듀크유니버시티메디칼센터로부터 췌장암선고를 받고 시한부생명을 살고있는 스테이플턴은 「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연결된 독특한 투병생활로 제2의 인생을 걷고 있다.

현대醫學치료거부「信仰힘」의존

질긴 다이어트요법끝에 스테이플턴은 몸무게가 33파운드나 줄어 현재는 95파운드를 유지하고 있다.

더우기 췌장암때문에 지라내 소화효소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 스테이플턴은 무슨음식이든 1백번이상 씹어먹어 위장의 소화를 도우면서 남아있는 소화효소의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

「지난 15년동안 선교사업에만 열중해온 복음전도사 스테이플턴은 확짜인 전도사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 올해 3월 감자기 위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다. 처음에는 의사들도 위궤양으로 진단했으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은 줄곧계속 되었으며 듀크센터에서 4월에 췌장암 선고를 받았다.

절망한 스테이플턴은 텍사스 텐톤 근방의 휴양지에서 요양하던중 다이어트전문가 루시의 제자를 만나 다이어트요법을 전해듣고 곧 신앙심과 연결시켜 현재의 치료를 계속하기 시작했다.

카터의 어머니 릴리언·카터도 81년도 유방암에 걸렸으며 아버지또한 췌장암으로 사망한 쓰라린 경험을 당한 스테이플턴은 듀크센터에서 퇴원한후 곧 보스턴으로 날아가 루시를 만났다.

『만일 다이어트요법이 적절하게 효과를보면 치료가 가능하다. 불치의 암에 걸린 내환자의 20%가 이요법으로 암을 물리쳤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을 얻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다이어트요법은 정신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인 통계자료가 없으며 치료 결과에 대한 의학적인 사

15년동안 宣敎사업에만 몰두 鬪病도「자신의믿음」연결되게

규칙적운동·처절한 식이요법등

듀크메디칼센터의 의사들이 그녀에게 방사능치료와 화학치료법을 권유했지만 스테이플턴은 현대의학의 치료법을 거부하고 「믿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면서 엄격하고 규칙적인 운동, 처절한 다이어트, 그리고 묵상의 생활로 암과 싸우고 있다.

오빠인 카터전대통령과 그녀의 아들인 안과의사 스콘트, 남편 바비 등이 적극적으로 현대치료를 종용했지만 스테이플턴은 「신앙의 치료」를 버리지않고있다.

오히려 남편 바비는 부인의 집념에 감복 적극적으로 그녀의 치료법을 돕고있다.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스테이플턴은 보스턴의 다이어트 전문가 미치오·루시의 권유로 음식물의 배합을 조절하는 식이요법을 시행하고있다.

그녀는 아침 6시에일어나 명상에 잠긴다.

하얀새들이 몸속에서 뱀을 쫓아내고있다고 상상하고있다.

뱀은 췌장암,하얀새는 체내의 백혈구를 비유하고있다.

명상이 끝난뒤 스테이플턴은 남편이 끓여다주는 생강차를 온몸에 바르고 당분없는 사과와 버터, 쌀등으로 식사를 한후 깊은 심호흡과 반마일정도의 조깅으로 하루를 보낸다.

육류나 생선등을 피하고 보통사람들은 삼키기 어려운 부피큰 다이어트 곡식과 해초를 먹는 끈 례가 없다』며 이방법에 대해 회의를 표시한다.

이에대해 스테이플턴도 다이어트요법을 2차적 치료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숨김없이 말하지만 『완치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다이어트요법은 자신의 신앙생활과 연결되는 알맞은 치료방법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다이어트요법으로 예전보다 훨씬 맑은 기분을 느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상의 모든 생각을 「암의 극복」이라는 한가지 목적에만 집중시킬수있어 비록 불치의 암에 걸렸지만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다고 말하고있다

政治家아내는 호화롭지만은 않다

경제·자아실현 노려「獨立的삶」구가

흔히 정치가들의 부인하면 내조에바쁜 여인상을 연상하게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국회의원 부인들은 상당수가 경제적 보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변호사, 의사, 음악가, 사업가등으로 독립적인 삶을 구가하고 있다.

캔사스출신 공화당소속 상원의원 밥·도올의 부인 엘리자베스·도올여사는 변호사로 출발 연방무역위원회 위원과 레이건대통령보좌관을 거쳐 현재 교통성장관을 맡고있다.

위스컨신출신 민주당소속 상원의원 윌리엄·프록시마이어의 부인 엘렌여사는 각종회의와 연회등의 주최를 대행하는 워싱턴힐어라운사의 동업자로 활약하고 있다.

또 하원의원 필·그램(공화,텍사스출신)의 부인 웬디여사는 경제학박사로 텍사스 A&M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연방무역위원회소비자보호국부국장과 국방분석연구소연구원을거쳐 현재 연방무역위원회경제국장으로 일하고있다.

7살과 10살의 두아들을둔 그램여사는 남편의 조력이없었다면 이같은 중책을 감당할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휴회중일땐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있다고 집안사정을 털어놨다.

하원의원 트랜트·롯(공화, 미시시피출신)의 부인 트리샤여사도 직장과 국회의원아내 역할을 조화있게 꾸려나가는 케이스. 남편을 법대에 진학시키기위해 치과보건원으로 일했던 그녀는 아이를 갖고 남편의 선거를 뒷바라지하느라 직장을 떠났다가 만찬파 각종클럽에 끌려다니는 것에 신물나 다시 전직을 되찾았다.

『집에 돌아오면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 끼리만 어울리면 일반사람들의 생각을 잘모르기 마련이거든요』라고 트리샤여사는 직장의 생활이 뜻밖에 남편을 돕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법학도로 변호사시험이 끝난뒤 곧 남편과 결혼했다는 상원의원 제프·빙거맨(민주, 뉴멕시코출신)의 부인 앤여사역시 직업여성.

세살짜리 아들의 엄마인 그녀는 뉴멕시코대학법학교수,주법무차관보, 연방준비운행이사회자문관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워싱턴에 있는 피닉스사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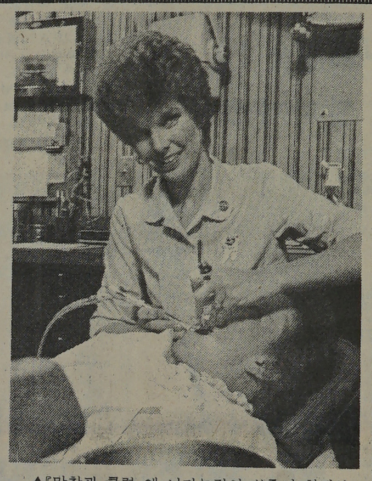
그녀는 독점금지법 전문변호사이지만 의회로비 활동은 안하고있다.

또 소위 복덕방을 경영하는 부동산업자도 국회의원부인들 가운데 십여명에 달한다.

루이지아나출신 민주당소속 하원의원 제리·허케비의부인 슈여사는 전직교사. 그녀는 남편이 받는 연봉6만9천8백달러로는 호화로운 의원생활을 지탱하기 어려워 교직복귀를 희망했으나 의원부인은 멋대로 행동하는 기분파일것이라고 생각한 학교들이 자리를 교사직도 맡고있다.

『국회의원부인은 흔히 생각하듯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난 가정부도 두지않고 혼자 청소나 빨래는 물론 정원손질까지 하는걸요』라고 루이스여사는 말했다.

마빈·리스(민주· 텍사스출신) 하원의원의 부인 알타여사는 브라질산 보석전문점을 최근 워싱턴의 워터게이트호텔로비에 개장했으며 처녀시절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했던 윌리엄·포드(민주, 미시건출신) 하원의원



▲『만찬과 클럽』에 나가는것이 싫증나 치과보건원으로 다시 취직했다는 트랜트·롯하원의원의 부인 트리샤여사.

남편따라"만찬클럽 다니기 짜증" 사회활동·사업등 職業찾기 열중 고향 집안일로 別居하는 부인도

내주지않아 부동산업을 개업하게됐다는것이다.

이같은 경우는 하원의원 더글러스·비로이터(공화·네브라스카출신)의 부인 루이스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학교선생 자리를 부탁하자 학교측은 한결같이 「국회의원부인 사절」을 표명하더라는것. 미학석사인 루이스여사는 현재 화가로 활동하면서 대리의 부인 마르타여사는 최근 하원행정위원회에 취직,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하고있다.

한편 일부국회의원 부인들은 고향의 집안일때문에 부득이 남편과 얼마동안 떨어져 살고있다.

시드·모리슨(공화, 워싱턴출신)하원 의원의 부인마셀라여사는 고향에있는 6백에이커의 과일농원을 경영하기위해 매년4월이면 고향에 내려가 12월까지 계속 머물고 있다.

또 자녀들을 다기른 의원부인들은 여가를 활용 사회활동을 하기도 한다.

로저·잽슨(공화, 아이오아출신)상원 의원의 부인 더여사는 6명의 자녀를 키운뒤 무보수로 남편의 스탭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백악관의 사기업법안 실무작업반에 임명되었다.

현재는 백악관 섭외담당으로 여성단체 및 농업단체들과 접촉하고있다.

제임스·하워드 하원의원(민주, 뉴저지출신)의 부인 마틀린여사도 자녀양육이 끝난후 사회활동을 자원 8세~18세사이의 불우소녀를 돕고있는 자선단체 빅·시스터의 워싱턴지부에서 생활환경 조사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톰·베빌(민주,아틀란타출신)하원의원의 부인 루여사도 자녀를 키우면서 틈틈이 배운 피아노솜씨를 발휘 현재 직업연주가로 활약하고 있다.

신장 개업 5월 16일

DANNY'S BARBER SHOP

(김중기 이발관)

오랫동안 아리랑이발관을 운영해 오던 제가 금번 호놀루루 경찰서앞 (YOUNG ST.)에 데니스 이발관을 개업하게 되었읍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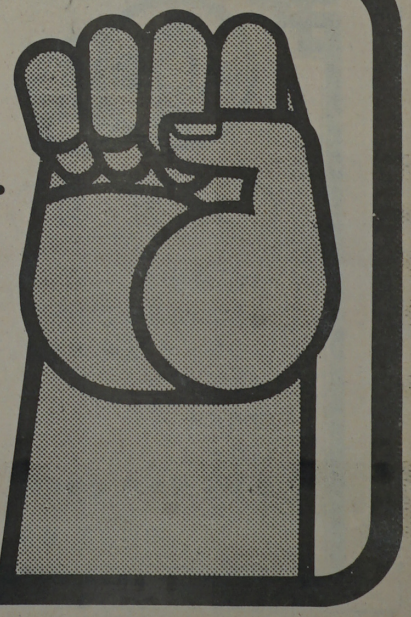
영업시간
8 AM ~ 6 PM
(월~토)

장소 : 1505 YOUNG ST.
(호놀루루 경찰서 앞)

전화 : 946 —7204
주차 : 이발관 앞에 무료

주먹구구식 광고는 시대착오입니다.

advertising
graphic design



한국일보 광고·인쇄부는 귀하의 사업번창을 효과적으로 도와 드리고 있읍니다.

문의는
☎ 955—2292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